

GIST 학부생들, 과학기술원 캠퍼스의 청춘과 열정 담은 <지스트의 온도> 출간

- 학부생 6명, 학업·동아리·봉사·국내외 타 대학 파견·연구실 인턴 등 소수정예 연구중심대학 GIST 학부에서 겪은 도전과 성장의 기록 진솔하게 담아
- 진로 고민부터 학교생활의 어려움 극복까지, 대학 신입생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



▲ (왼쪽부터) 최승규 · 윤세림 · 김현아 · 심수연 · 이은찬 저자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학부생 6명이 캠퍼스 생활을 기록한 <지스트의 온도>(출판사 퍼플)를 펴냈다고 밝혔다.

저자들은 국가과학기술 연구중심대학인 GIST에서 경험한 학교생활을 수필, 시,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. 친구·후배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회고록 형태로 집필된 이 책은 특히 내용 중간중간 만화를 수록해 독자의 흥미를 끈다.

<지스트의 온도>를 발간한 주인공은 GIST 학사과정 20학번과 21학번 입학생인 심수연(21학번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 재학), 김현아(20학번 화학과 학사 졸업, 現 GIST 화학과 석사과정 재학), 최승규(20학번 물리광과학과 학사 졸업), 윤세림(21학번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 재학), 이수민(21학번 생명과학과 학사과정 재학), 이은찬(21학번 물리광과학과 학사과정 재학) 학생이다.

저자들은 “어떤 사람들이 GIST를 만들어 왔는지”를 보여주기 위해 <지스트의 온도>를 ▲제1장 교내 활동 ▲제2장 학업 및 진로 ▲제3장 감정 그리고 일상 ▲제4장 외부 활동으로 구성하여, 학부 시절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GIST만의 고유한 특성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.



▲ (왼쪽부터) 이은찬 · 심수연 · 김현아 · 윤세림 · 최승규 저자

... 교육봉사와 멘토링을 반복할수록 나는 멘티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됐다. 지식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다.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성장해 나가는 좋은 계기이다.

- <지스트의 온도>, pp.33-34

1장 <교내 활동>에는 동아리, 자치회 등을 포함한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저자들의 경험이 담겼다. 특히 3장 <감정 그리고 일상>에서는 저자들이 학교생활 중 시행착오를 거치며 갖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성장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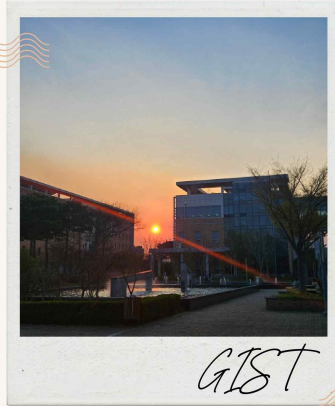
2장 <학업 및 진로>에는 GIST의 장점인 '인문/사회 융합 과학기술특성화대학'의 취지에 맞는 활동에 대한 저자들의 경험담과 함께 후배를 향한 조언을 담았으며, 4장 <외부 활동>에서는 해외 계절학기, 교환학생, 외부 프로젝트 참가와 같은 대외 활동 경험을 엿볼 수 있다.

한편 저자들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, 아직은 GIST 캠퍼스가 낯선 2024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해 30권을 특별 배부하기도 했다.

특히 신입생 캠프 프로그램 중 2월 21일 진행된 <지스트의 온도> 저자 특강에서 심수연 저자는 책을 발간한 목적과 각 장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.

이날 신입생 한 명은 "어려운 과목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"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, 이에 저자는 "학문적으로 깊게 몰입하고 성취한 경험은 훗날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때도 원동력이 되어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한다"고 답했다.

지 스톱의 온 도



지은이 | 심수연 김현아 최승규 윤세림 이수민 이은찬

PUB
PLE

▲ “지스트의 온도 책 표지” GIST 학부생 6명이 캠퍼스 생활을 기록한 <지스트의 온도>를 펴냈다.

<지스트의 온도>를 펴낸 저자들은 “어려운 시작, 힘든 과정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고, 바쁜 가운데서도 책을 완성시킬 수 있어 기쁘다”며, “**캠퍼스에 첫걸음을 내딛는 모두를 위한 이 책이 누군가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**”고 말했다.